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5월 15일(금) 14:00
배포일시	2026년 5월 15일(금) 08: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 (044-550-4655, jyoungh@kdi.re.kr)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 개최 결과

- 피터 하위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

- 일 시: 5월 15일(금) 13:10 ~ 17:40
-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1F)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주 관: 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참 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15일(금)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위트 교수를 초청해 AI의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30년간 5년에 1%p씩 추락해온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방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생태계 구축,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기존의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 속에서 오늘 콘퍼런스가 학계·정부·산업계가 함께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과 제로성장 위험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단기 경기 대응이 아닌 ‘진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기존 통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 구상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축사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안보 강화, 녹색 대전환 및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기조 세션에서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위트 교수는 한국경제가 인공지능,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인공지능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기술인 만큼 교육 체계, 사회 안전망,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또한 개방적 무역 체계 유지와 해외 혁신 인재 유치, 중소기업 육성, 반독점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선도형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과 피터 하위트 교수의 대담에서는 AI·로봇ics 확산과 선도형 성장 체계 전환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산업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주도 성장 전략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

-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에서 신용석 HMG 경영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최근 0%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제조업 내 자원배분 왜곡과 노동시장 역동성 저하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과 노동이 재배치되는 흐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
 - 또한 고급 연구 인력 비중 감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R&D 보조금 확대 등으로 R&D 투자의 질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산학연 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경제가 추격형 혁신의 한계와 AIX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만큼, '체계성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경직된 기존 성장 체계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DARPA식 R&D 자율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 활용, 외국인 딥테크 창업 활성화, 책임예산제·규제혁신·지방분권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업종 지정과 보조금 지원 중심의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기업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제는 '업종 지원'에서 '기업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정책은 매출·고용·유형자산 등 주요 지표에서 기대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고 규제 클리닉, 상설 성장전략 TF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촉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류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 참여해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세션 2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에서는 김세직 KDI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 총장(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 자문위원장)이 참여
 - 토론에서는 우리 경제의 30년 성장 추락 끝에 제로성장에 접어드는 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R&D 예산 배분 혁신, 제도 혁신과 사회적 합의 방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 및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 이번 콘퍼런스는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reoSQRO0FA>)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 요약문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3:10 ~ 13:25	개회식 개회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김세직 KDI 원장 축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3:30 ~ 14:40	기조 세션 기조 발제 ‘AI와 로보틱스 시대,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 경로’ The Path for Korea's Innovation-led Growth in the Age of AI and Robotics 피터 하윗 202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담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	
15:00 ~ 16:30	세션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발표① 혁신, 자원 배분, 생산성 신용석 HMG경영연구원 원장 발표② 빠른 추격형 혁신의 황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재설계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③ 기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피터하윗 교수 기자회견 (15:00~15:40)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F)
	좌장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토론 류근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	
16:40 ~ 17:40	세션2. 혁신성장을 위한 구조혁신 방향 좌장 김세직 KDI 원장 토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오세정 前 서울대학교 총장(NRC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자문위원장)	

※ 15:00 ~ 15:40 피터 하윗 교수 기자회견 (오키드룸, 2F)

❖ 첨부 2. 세션별 발표 요약문

[기조 발제]

AI와 로봇틱스 시대,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 경로

202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Peter Howitt)' 교수

-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추격형 성장에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
- AI는 개인용 컴퓨터, 전기화, 자동차와 같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평가됨
 - 범용 기술은 초기의 혼란과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전 산업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미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
 - AI의 확산은 교육 체계, 사회안전망,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기업·학계 간 협력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필요
- 개방적인 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도 핵심 전제 조건으로 기능
 - 국제무역은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모범사례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
 - 새로운 무역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기존 교역국의 수출 수요 둔화에 대비해 내수 소비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인구 감소는 일부 우려하는 만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닐 수 있으나, 혁신 역량을 갖춘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선택적 이민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
- 한국 경제가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보다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 집중, 반독점 정책 강화, 위험 중립적이며 기술 친화적인 금융 체계 구축, 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발표 1. 혁신, 자원 배분, 생산성

신용석 HMG(Hyundai Motor Group)경영연구원 원장

□ R&D 투자와 생산성의 괴리

-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미국을 추월하며 지속적으로 급증했으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최근 0%에 근접
- R&D의 질적 저하 우려: 고급 학위를 가진 연구 인력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SMEs)에 집중된 R&D 보조금 혜택이 급증하여 R&D 투자의 질적 효율성이 의문이 제기됨.

□ 자원배분 효율성 및 경제 역동성 저하

- 배분 효율성 악화: 제조업 부문에서 실제 GDP와 효율적 GDP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자원배분 왜곡이 심화
- 창조적 파괴의 약화: 과거(80~90년대)에 비해 최근(2013~2018년) 고용 창출과 소멸의 폭이 줄어들며 노동시장의 역동성 감소
- 동태적 효율성 감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가 지날수록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자본과 노동(고용)이 이동하는 반응성(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

□ 중국의 기술 발전에서 얻는 시사점

- 중국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 네거티브 방식의 느슨한 규제, 치열한 경제(가격 전쟁 및 996 근무 문화), 그리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 확보

□ 한국이 직면한 과제 및 정책 제언

- 글로벌 위기의식 고취: 국내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빅테크 기업, 각국의 산업정책 등 글로벌 경쟁의 쓰나미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
- 과감한 규제 완화: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 노동시장 개혁: 근로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에 중점을 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할 필요
- 조건부 지원 및 재분배: 경쟁 압력이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분배 정책을 설계해야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발표 2. 빠른 추격형 혁신의 황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 혁신시스템의 재설계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는 60년의 압축 성장으로 1인당 GDP가 230배 성장하였으나, 잠재 성장률은 한 세대 만에 1/4 토막으로 하락
 - 이제는 추격 여백의 소진과 AIX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혁신 기반 성장 지속 위해 압축 성장기의 운영체제였던 '유연성의 체계성'에서 탈피, 프론티어 시대에 부합되는 '체계성의 유연화'로 전환해야
 - 그간 주먹구구식 성장을 매뉴얼·표준·5개년 계획으로 정련해 왔으나 누적된 체계화가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단계에 진입
- (R&D 혁신) '의도된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체계화된 유연성을 확보해야
 - DARPA식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PM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예외의 제도화, 충분한 인센티브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인적자원 혁신) 글로벌 인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귀국을 원하는 인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과학자(MD-PhD) 육성 및 의사 창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 경쟁력을 강화해야
 - 일론 머스크(남아공), 리사 수·젠슨 황(대만계)의 사례처럼 이민정책을 혁신하여 외국인 딥테크 창업의 활로를 확보해야
- (거버넌스) 책임예산제·입법부 규제혁신·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책임예산제 도입으로 부처 갈등 조정 비용을 줄이고 예산사업의 대형화와 정책 다이어트 추진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 입법부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기술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 '여러 개의 서울'을 만드는 상향평준화 정책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차별화된 게임의 규칙'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세션 1.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

발표 3. 기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직업' 사유의 청년 인구 수도권 이동이 심화
 -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기존의 지역별 '업종 선정+ 보조금 지원' 방식의 지역산업 정책이 실제로 기업의 투자·성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
- 균형발전을 위해 14개 광역지자체별 2~5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지역주력산업' 정책이 기업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함.
 - 지정 이전부터 지역주력산업의 성과 수준이 높고 추세도 가팔랐으나, 지정 이후에는 자연 성장 경로 대비 일관된 음(-)의 효과가 관찰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 매출, 부가가치, 고용, 유형자산, 자원배분 효율성 모두 유의한 음의 효과
 - 합성 이중차분 분석 결과도 사후 평균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
-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는 시대에서 '기업의 성장을 설계하는' 시대로 전환이 필요. 경쟁·컨소시엄·성과 연동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허브' 모델 도입을 제안
 - (혁신 클러스터 허브)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등 다부문 컨소시엄의 연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
 - (성장 촉진 생태계)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등 성장 왜곡 구조를 개혁하고, 1:1 규제클리닉, 상설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상시 해소